

“106년 전 봉오동 전투 되살려…대한민국 만세”

고려인마을 광복 81주년 기념행사

동포·시민 등 500여명 물총으로 독립군 장면 재현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항일정신 되새긴 ‘역사 체험’

“대한민국 만세!”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주특별시 고려인 마을에서 106년 전 독립군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과 지역 학생, 시민들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며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는 고려인 동포와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 81주년 기념행사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이 열렸다.
“고려인마을과 동포체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고려인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중심은 1920년 흥병도 장군 등이 이끈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1920년 6월)의 재현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과 물총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본군 복장을 한 참가자들과 대치한 뒤 물총을 쏘며 전투 장면을 재현했고, 약 200m를 이동해 흥병도공원에 도착했다. 흥병도공원에서는 물대포로 준비된 바울 터뜨리며 독립군의 승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단순한 체험행사에 그치지 않고 고려인 동포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연결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시민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 시흥의 백하은양(8)은 가족과 함께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백양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 광복절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찾아왔다”며 “독립군이 돼 일본군을 물리치는 경연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광주 대성여고 학생 정다예양(16)은 “광주에 고려인마을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직접 와보니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회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대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고려인마을 주민 및 시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흥병도 장군의 항일 무장독립투쟁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재현행사 이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직접 만든 전통빵 ‘리보시카’와 ‘파트’를 나누며 광복 81주년 기념음악회를 이어갔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광복절 노래’ 등을 부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고, 검무단은 고려인 동포들의 전통 검무를 선보였다.
아리랑가무단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고려아리랑’을 공연하며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다. 이와 함께 ‘그림동화 고려아리랑’ 출판

기념 원화전시와 작가 사인회, 태극기 부채 탁본, 마트로시가 인형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고려인마을은 현재 약 7000명의 고려인이 생활하는 국내 대표적인 고려인 공동체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이주를 겪은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복절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는 날”이라며 “고려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고려인마을의 역사와 흥병도 장군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켰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오늘의 날씨

예보	05:56	달빛	11:35
해질	19:20	달빛	21:31



광주		24~33
목포		25~32
여수		25~31
순천		24~31
구례		24~32
광주		24~31
임도		25~32
흑산도		25~33
고흥		24~31
진도		24~31

목포	밀물(고)	05:43 / 18:15
	썰물(저)	10:49 / 23:08
여수	밀물(고)	00:03 / 12:31
	썰물(저)	06:00 / 18:25

카페서 ‘흥기’ 위협한 60대

만년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한 카페에서 흥기를 꺼내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공장소흥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32분 광주특별시 서구 한 카페에서 날 길이 8cm의 흥기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세상에 돈 있는 놈들은 죽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
A씨 측은 불상의 남성에게 위협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위법하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위협한 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 역시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근거로 체포한 만큼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결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공공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515@

추석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 9월 3~11일…교통약자 우선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9월 3~11일 온라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17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승차권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신부다.
7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수 219mm’ 전남광주 폭우…주택 등 침수 피해 잇따라

145건 피해 신고…여객선·국립공원 등 입산 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밤사이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광주특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145건의 비 피해 관련 안전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침수 피해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50건을 비롯해 도로 45건, 상가 16건, 주택 마당 11건, 지하실 5건, 차량 1건 등이었다. 하수구 역류 3건과 나

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도 9건 발생했다. 실제 전남 오전 9시24분 목포시 호남동에서는 상가 지하실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17일 오전 6시 43분 여수시 중흥동 한 도로가 빗물로 가득차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나섰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하수구가 역류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우로 해상교통과 국립공원 탐방도 차

질을 빚었다.
완도·목포·여수·고흥을 오가는 51개 항로 88척 가운데 9개 항로 5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무등산과 지리산 전남, 내장산 백암 등 국립공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이 전면 제한됐다.
비의 위력은 강수량에서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여수 219mm, 해남 217mm, 영암 186.9mm, 여수 170.8mm, 목포 166.5mm, 광양 151.2mm, 진도 135.5mm, 순천 117mm, 곡성 113.5mm, 장흥 107.5mm, 광주(무등산) 105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은 목포 66.4mm, 해

남 64mm, 진도 60.8mm, 여수 51.5mm, 무안 44mm, 영암 42mm 등으로 한꺼번에 강한 비가 쏟아졌다.
목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 66.4mm를 기록하며 8월 기준 1시간 최대 강수량 극값을 새로 썼다.
현재 호우정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19일까지 곳곳에 5~6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한풀 꺾여 19일까지 평년(아침 최저기온 22~24도, 낮 최고기온 29~32도)과 비슷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특별시교육청, 2027 수시 지원자료 보급

‘수시지원 가능해 Dream’·‘빛고를 진학대로’ 등 3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 학교 현장의 진학상담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진학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전남지역 학교에 ‘2027 수시지원 가능해 Dream’과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을, 광주지역에는 ‘빛고를 대학 진학대로’를 각각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지역 자료는 오는 18일부터 학교에 배포되며,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지난달 말 보급이 완료됐다.
‘2027 수시지원 가능해 Dream’에는 전남대 학생부교과전형을 비롯해 서우요 대학교와 전국 의·치·약학계열의 지원 가능 참고사항이 담겼다.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은 전국 90개 대학의 수시모집 주요 일정을 월

별 달력 형태로 정리했다. 대학별 1단계 합격자 발표와 면접·실기·논술고사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지원 대학을 결정한 뒤 전형별 준비 일정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 배포된 ‘빛고를 대학 진학대로’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 국가거점 국립대, 호남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의학계열과 교육대학 등의 지원 참고표가 담겼다.
김민수 기자 joinus@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하니 30% 줄었다

광주특별시 남구 아파트 2곳 배출량·비용 줄어 10월까지 공동주택 3곳 추가 설치 등 확대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공동주택에 도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가 실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어지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7일 광주특별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된 백운송촌파인힐과 금영푸르미 아파트의 올해 1~7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두

단지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백운송촌파인힐은 올해 1~7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만4031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293kg보다 7262kg(34.1%) 줄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도 197만5620원에서 129만3570원으로 68만250원(34.5%) 감소했다.
금영푸르미 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배

출량이 1만9413kg에서 1만3138kg으로 6275kg(32.3%) 감소했다. 처리비용도 182만8880원에서 123만8290원으로 59만590원(32.3%) 줄었다.
두 아파트에서만 7개월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1만3537kg이 감소하고 처리비용 약 127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감량 효과의 핵심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공동주택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사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지만, 종량기 설치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는 구

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주민들이 음식물을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감량에 나서면서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공동주택 3곳에 추가로 종량기를 설치하고, 내년에 도 사업비를 확보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종량기 설치 이후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줄이려는 변화가 실제 감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폐기물 처리 정책을 넘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량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